

마을을 잇다 마음을 잇다

마을 야영장, 침산추월

Vol. 3 _ 2022.10



발행처 : 공공프리즘 발행인 : 공공프리즘 기획/편집 : 공공프리즘 디자인 : 그레이디멘션

마을을 잇다 마음을 잇다 마을야영장 침산추월



<마을 야영장, 침산추월>의 탄생



침산마을은 마을 뒷산이 다듬이돌처럼 길고 평평하다 하여 '다듬이돌 침(砧)'과 '외 산(山)'자를 합해 지어진 지명입니다. 빨래를 두드리며 주름을 펴주는 다듬이돌처럼 우리 마을의 구김도 펴주는 포근한 마을이지요.

1900년대 초, 침산(山)에서 바라보는 가을 달이 절경이라 하여 <침산추월(砧山秋月)>이라는 말이 옛이야기처럼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가을 달이 어찌나 절경이던지, 당시 마을 주민들은 침산(山)에 올라,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조치원역 구도심 앞에 상반되는 좁고 어두운 마을이라는 선입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비롯해, 마을 전반의 공간들이 다수 유향화 되어 있었습니다.



침산마을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2시간 거리에 있는 조치원역에 내려 후문 바로 앞에 있는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變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을 통해 침산마을을 다시 그려냈습니다.



化

일상에서 벗어나 달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들과 소원을 비는 시간



마을의 자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자생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마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3년 간의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침산마을은 <마을 야영장, 침산추월>로 마침내 재탄생합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침산마을의 경치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캠핑'이라는 키워드가 접목되어 침산마을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침산추월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마을 夜影장, 砧山秋月

밤야 그림자영 다들잇들침 외산 가을추 달월

침산에서 바라 본 가을 달의 모습

야영(夜影)의 뜻은 달빛을 받아 밤에 희미하게 비치는 물체의 그림자라는 의미로, 단순 야영장이 아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침산마을은 1930년대 발행된 연가지에서 선정한 연기 8경에 선정되어, 침산마을 주민들은 **침산(山)에서 바라 본 가을달의 절경**을 바라보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옛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마을 야영장
침산추월
VILLAGE CAMPING
CHIMSANCHUWOL

마을, 산, 가을, 달
침산마을의 자원을
라인일러스트로 표현

마을 통합 브랜딩 추출

달

소원

침산추월의 옛 이야기의 키워드 추출
사업 주최기관의 슬로건 더하기

: 일상을 벗어나 달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들과 소원을 비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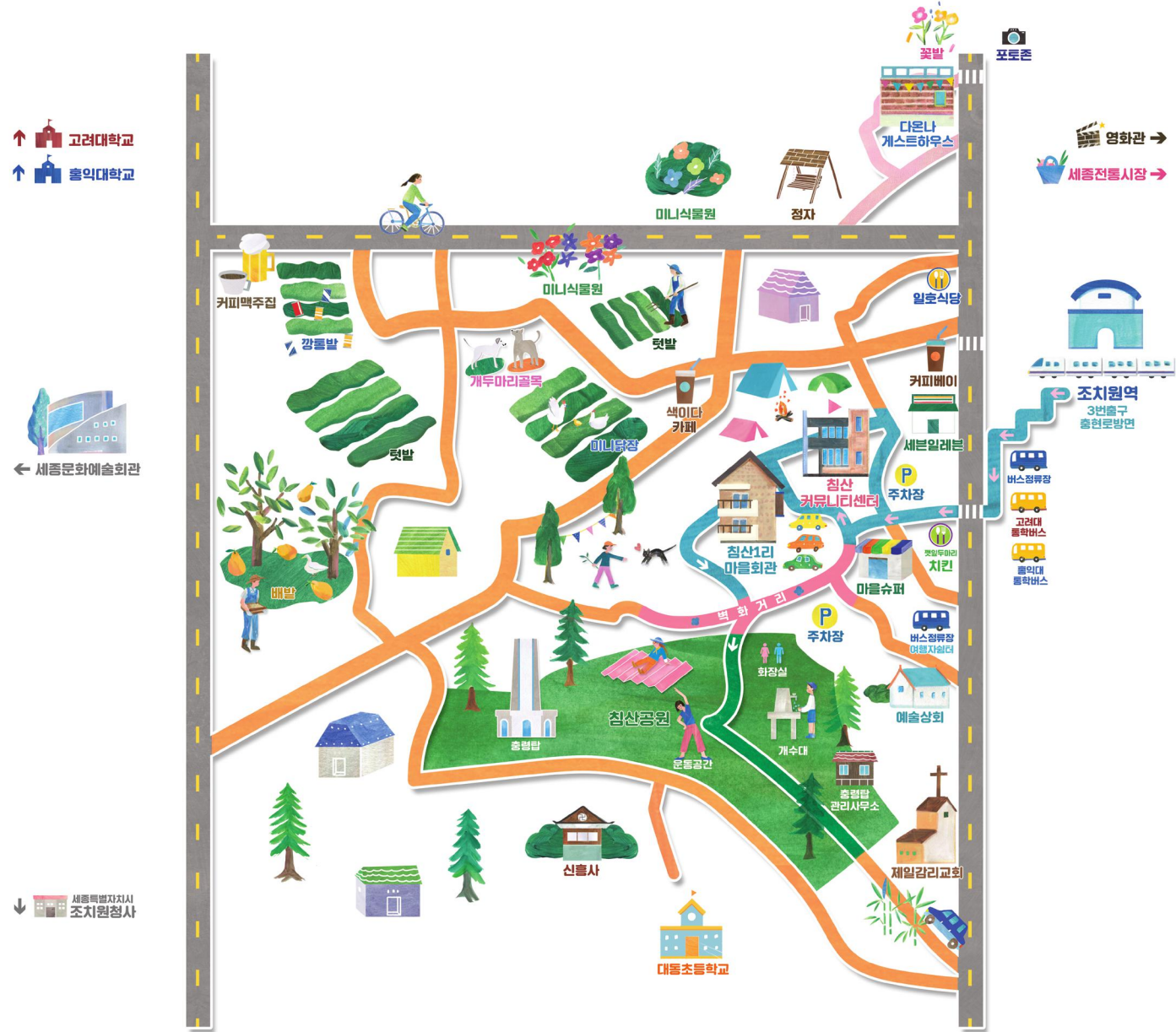
마을 통합 스토리텔링

Hope. Together.



마을과 마을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
도시와 자연

침산추월, 걷고 싶은 마을이 되다



마을 내 커뮤니티 센터와 급경사지 부지의 유휴 공간들은 마을의 이야기를 가진 공간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채,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기존의 커뮤니티센터는 <침산추월 센터>로 변모하여, 침산마을의 주민 거점공간이자, 침산추월의 비즈니스 허브로 역할하는 침산추월 캠핑체험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EFORE



AFTER



▲ 캠핑체험카페 전경

▲ 캠핑체험카페 1층

▲ 캠핑체험카페 2층

▲ 캠핑체험카페 루프탑